

예산안 후폭풍속 세종시 대격돌 임박

2010년 새해 벽두까지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던 여야는 올 1년동안에도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살얼음판 새해 정국... 메가톤급 이슈 즐비

지방선거 기싸움 치열... 개헌론·아프간 파병 변수

세종시 수정, 아프간 파병, 개헌론, 6월 지방선거 등 정국을 뒤흔들만한 쟁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가장 먼저 충돌할 사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것이지만 여야는 기선 제압 차원에서라도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보고대회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대국민홍보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아권공조를 토대로 세종시 수정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대야투쟁에 본격 돌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세종시 논란은 특히 한나라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어서 더

욱 관심거리다. 박근혜 전 대표가 기존의 '원안 플러스 알파(+α) 입장'을 꺾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이 힘들 뿐 아니라 심할 경우 분당의 위기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

또 여야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안과 노동관계법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두 안건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임의변

경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 예산 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늦게 처리한 것과, 지난 1일 0시를 기해 노동관계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법 개정을 한 것 등에 대해 위험적 요소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 역시 정치판을 뒤흔들 요인이다. 개헌론자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임기 내 성사를 위해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필 태세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에는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차기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박근혜 전 대표 측 역시 개헌에는 신중할 입장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3일 부산 금정산에 오르고 있다. 정 대표는 2010년 한해 집권여당의 방향과 마음가짐, 6·2 지방선거 필승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새해 첫 등산을 했다. <왼쪽>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이 신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3일 부산 금정산에 오르고 있다. 정 대표는 2010년 한해 집권여당의 방향과 마음가짐, 6·2 지방선거 필승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새해 첫 등산을 했다. <왼쪽>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이 신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안싸움’ 고민 깊어가는 여야

野 예산안 책임론 싸고 조기 전대론·與 정몽준 비판론 비등

정지권이 신년 벽두부터 조기 전당대회 개최 논란이 휩싸일 것으로 보이는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전으로 골치를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하는데 것을 두고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는 지도부 퇴진을 목표로 공세 강화를 버리고 있다. 일부에선 “여당에 끌려만 다니다 결국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는 비판론도 거세다.

이미 미디어법 싸움에서 여당에 패배했던 만큼 지도부의 리더십은 많이 흔들림이 난 상태여서 조기전당대회 논란이 일면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당권 경쟁에는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가 핵심 변수다. 정동영계는 2월 경을 복당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만큼 주류 비주류 간 대충돌은 이 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내 비주류 초재선 의원 모임인

‘국민모임’이 오는 14일께 ‘민주당이 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때를 전후해 조기 전대론의 운파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집안싸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장파 내부에선 “야당이 조기전대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우리도 지도부 교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

다. 정두언 나경원 정태근 등 7인 모임은 1월 초 원회통 의원 합류 등으로 세력을 보강한 뒤 10인모임으로 본격적으로 조기전대론에 불 지피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정몽준 대표는 지난 연말 예산 정국을 통해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처지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3차회담 중재안을 내놓은 과정에서 당정간 불협화음만 부추겼다는 비판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조기전대 개최 여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특히 친박계가 지방선거에서 책임만 지고 얻는 게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어 조기전대론이 좌초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주승용 의원 내일 전남지사 출마 공식 선언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여수)이 5일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화동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여 년간 중앙정치와 지방행정 경험을 살려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에 부응, ‘강한 전남’을 만들겠다”며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또 주 위원장은 오는 23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아름다운남도, 아름다운 사람들(가제)’이란 제목의 출판기념회도 가질 계획이다.

구립 29일 이석형 합평군수의 전남지사 출마 선언에 이어 주 위원장이 가세함에 따라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성에 2월까지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시민주권모임, 민주통합시민행동은 민주당부 10년의 고락을 함께 나누어 온 동지들이고 이해찬 전 총리, 정동영 의원, 유시민 전 의원 등 민주당부 10년에 함께했던 모든 인사들은 통합에 참여해 큰 틀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도부, 지역위원장, 대의원 구성과 후보공천에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참여당도 정당 창당을 중단한 뒤 통합논의에 조건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은 3일 국회 보좌관·비서관들로부터 ‘2009년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립 18~19일 국회 보좌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가장 돋보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 설문조사에서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민노당 의정활동에 이어 2위(11%)에 올랐다.

이 의원은 특히 40대 이상 보좌관 조사에서 1위, 한나라당·민주당 보좌진이 뽑은 민주당 의원 1위를 차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주선의원 민생·민주세력 통합 제안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3일 민생·민주세력의 조건 없는 대통합을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횡포,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길은 오직 민주진영의 조건 없는 대통합뿐이다”며 “민주당에 통합수입기구를 만들고 제3지대에서 통합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즉각



‘장수’ 장·차관 대상 연초 개각설

이만의 환경 등 5~6명 거론

연초 개각설이 부상하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일각한 장·차관들이 이미 2년 가까이 재임한 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도 일부 있어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것.

여기에 정권 출범 3년차에 접어든 데다 세종시 수정 대안 발표 이후 국정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단 개각의 여지는 충분한 상황이지만 시기는 세종시 수정 대안 제시 등을 감안할 때 구정 직후인 2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개각이 단행될 경우, 지난 해 9월 3일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관의 교체 이후 5개월 만이다.

일단 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장기 재임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

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차관 가운데서는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켜온 임채민 지식경제1차관, 이병욱 환경부차관, 권도엽 국토해양1차관, 정중수 노동부 차관, 홍양호 통일부 차관 등이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는 정동화 연설기록비서관 등 일부 인사들의 자치단체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차관들도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이명박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과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한 사전 정치 작업으로 실용적 성격이 짙은 인물을 적극 기용하는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국민참여당 대표 출마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국민참여당 대표에 공식 출마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단독 입후보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전 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김충환 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 김영대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6명이 출마했다.

이재정 후보는 구립 30일 당 지도부 선출 카페에 올린 출마의 변을 통해 “당 대표를 추천받으면 후보 수락을 하겠느냐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애초 구구 사양했다”며 “그러나 여러 현실 여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 같아 추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당 대표 입후보 의사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원 경제부동산의 매각 공고. A large section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legal notices and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details about land parcels and sale procedures.